

2023학년도 대학 교양 음악 교과의 운영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University Music Liberal Arts Courses in the 2023 School Year

김소연*

Soyeon Ki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교양 음악교육의 실태 분석 및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일반종합대학 40교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과정, 교수요목, 수업계획서를 수집하여 총 225개의 교양 음악과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영 면에서 음악학과(61.78%), 음악학과가 없는 경우 교양대학(23.11%)에서 주관하였다. 과목유형은 자유교양(41.33%), 영역배분과목(47.56%)이 많고, 예술 또는 인문학과 관련된 영역명을 사용했다. 강의내용과 방법은 음악단독-이론(68.21%), 음악단독-실기(31.79%), 융합-이론(30.39%), 융합-실기(9.62%) 순이었다. 음악단독 강의주제는 이론으로는 음악사, 실기로는 가창이나 기악연주에 집중되어 있고 융합강의는 인문학과와의 융합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양 음악교육의 독립성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 양질의 다양한 음악 단독 및 융합과목을 연구,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교양 음악교육, 음악 교양과목, 음악 교양수업, 교양 음악교육 실태, 교양 음악교육 운영 현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music liberal arts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To achieve this, 40 of 4-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ere selected, and the curriculum, class objectives, and course plans for the year 202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operation, the music department accounted for 61.78%, while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ccounted for 23.11%. As for the types of subjects, there were general education courses (41.33%) and distribution requirement courses (47.56%), and names of areas related to art or humanities were used. Content and method of lecture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music theory lectures (68.21%), music applied lessons (31.79%), music convergence theory lectures (30.39%), and music convergence applied lessons (9.62%). While music lectures emphasized history, singing, and instruments, convergence lectures emphasized humanities. The proposal suggests securing professional lecturers to enhance liberal arts music education autonomy and developing diverse, high-quality music and convergence subjects.

Key words: music liberal arts education, music liberal arts course, music liberal arts class, current state of music liberal arts education, operational status of music liberal art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ssoya@naver.com

Lecturer,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Korea

Received: 21 February 2024, Reviewed (Revised): 2 April (5 April) 2024, Accepted: 26 April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대학의 교양교육은 다양한 전공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자유 교육을 실시한다(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p.3). 교양교육은 전공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과정이나 보충, 보완의 과정이 아니다.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정보를 응용하고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교육이다(Lee, 2017, p.48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교양교육은 현재적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적 미래를 탐구하는 성찰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대학교육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Paek, 2019, p.12).

음악은 심미적 특성을 지닌 소리 예술로, 자아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음악을 구성하는 리듬, 선율, 화성 등 심미적 특성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움직임과 쉼, 긴장과 이완 등과 같은 다양한 패턴은 인간의 정서적 삶을 담아낸다(Langer, 1942; Jo, 2019, Requoted from p.79). 개인은 이러한 음악을 듣고 연주함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되며 정서 순화, 창의적 발상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정, 의도, 의미를 음악이라는 미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소통의 채널을 확장할 수 있다(Hargreaves, MacDonald, & Miell, 2005, p.1). 따라서 교양 음악교육의 목적은 과거와 현재의 음악을 통해 심미성을 체험하고 풍부한 정서적 소통을 나누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음악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학 교양 음악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1970년대 후반 교양교육에서 음악과목이 개설된 후로 음악 교양과목은 주제도 다양화되었고 개설된 과목수도 증가하였다(Na, 2009; Park & Son, 2023).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학계에서도 대학 교양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양 음악교육에 대한 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교양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방향(Jang, 2012; Lee, 2021)을 비롯하여 인성교육(Choi, 2015; Han, 2021; Han, 2022)이나 문화의 다양성(Kim, 2022), 세계시민교육(Son, 2019), 포스트휴먼 담론(Shin, 2017) 등의 특정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 둘째, 교양 음악교육의 수업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주로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개발한 것으로 교육학적 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Lee, 2015), 창의성(Kim, 2015),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Nam, 2020), 비대면 음악 비평 프로그램 개발(Lee, 2021),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교육모델 개발(Son, 2020), 문제중심학습(Han, S. I., 2023), 스토리텔링(Park, 2021), ARCS 학습 동기 모델(Han, S. I., 2022), 기억술(Han, S. J., 2023), AHP 기법(Song, 2021) 등을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음악과 타학문의 융합 제안(Hyun, 2011; Jo, 2018; Lee, 2023; Oh, 2013; Oh & Kim, 2009; Oh, 2015) 등 매우

다양하다. 셋째, 교양 음악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음악 흥미도, 교육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관한 효과(Han & Han, 2022), 학습몰입, 학습 지속 의도에 관한 효과(Park, 2015; Han & Jo, 2020),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과의 관계(Han & Han, 2013), 생활 속 음악 활동과 음악회 참석에 미치는 영향 연구(Choi, 2021) 등이 있다.

그러나 교양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 음악교육의 현황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책은 교육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판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에서 교양 음악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는 4건에 불과하다. 조사의 시점으로 볼 때 박지영과 손민정(Park & Son, 2023)의 연구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8년도와 2022년도의 교양 음악과목 현황을 비교 조사하였다. 두 시점을 비교하여 교양 음악 과목수, 주제별 분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고, 2022년 1~2학기에 개설된 강의 목표의 특성, 교육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22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큰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서울시 외의 대학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과목의 유형이나 영역, 음악 단독/융합 과목별 세부 강의주제와 강의방식 등 미시적인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정진욱(Jung, 2007), 나상미(Na, 2009), 심소영(Shim, 2017)의 연구는 강의주제, 강의방식,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 설문조사 등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오래되었고 서울 또는 부산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4년제 종합 대학교 중 40개 교를 선정하여 2023학년도 1~2학기에 개설된 교양 음악과목의 운영주관, 유형, 상위 영역, 성격, 강의방식, 강의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현재 교양 음악교육의 운영상의 거시적, 미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분석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4년제 종합 대학교의 음악 교양과목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학은 첫째, 2023년도 현재 대한민국 전국의 4년제 종합 대학교 총 204개 교 중 산업대학, 교육대학, 특별법 설치대학을 제외한 180개 교에서 임의로 40개 교를 선정하여 교양 음악교육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국립대학교는 총 29개 교 중에서 18개교(62%), 사립대학교는 총 151개 교 중에서 22개 교(14%)를 선정하여 국립대학교

와 사립대학교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었다. 본교, 분교가 존재하는 대학교는 2곳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대학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40개 종합 대학교의 대학 홈페이지에 교수요목, 수업계획서 등 교양교육 및 교양과목에 대한 안내자료가 비교적 자세하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음이 선정요인 중의 하나로 반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대학 목록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National public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Tech, University of Seou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ong national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Ulsan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ivate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nkuk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Kyunghee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jo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jou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2. 분석기준

1) 음악 교양과목 설명자료 검색

선정한 40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교양교육 안내, 2023학년도에 공지된 교육과정, 교수요목, 1학과와 2학기의 수업계획서 등 음악 교양과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검색하였다. 비소속 외부 연구자가 검색할 수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음악 교양과목 조사

본 연구의 주제인 음악 교양과목은 음악가의 삶과 사상, 인간과 음악적 상상력, 음악을 통한 세상보기 등과 같이 과목명에 ‘음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과목과 음악의 하위 분야를 제목으로 두는 과목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음악사(서양음악사, 국악사, 대중음악사), 음악장르(오페라, 뮤지컬, 극음악, 예술가곡,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판소리, 난타, 재즈), 음악편성(합창, 오케스트라), 음악이론(음악이해), 음악활동(가창, 보

컬트레이닝, 작곡, 악기연주/실습/실기), 다문화음악(세계음악), 융합분야(음악치료, 음악과 건강, 음악테크놀로지 등) 같은 하위 분야가 조사되었다. 교양과목 중 과목명이 ‘예술’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미술, 영화 등 타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음악 교양과목 실태 분석

음악 교양과목의 운영주관, 과목유형, 과목영역, 과목성격, 강의방식, 강의내용을 실태 분석의 세부 항목으로 두고 각 대학의 자료를 엑셀에 정리한 후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단, 본 연구는 공개된 문서를 토대로 분석되었으므로, 교양수업에서 실제로 실현된 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운영주관: 음악 전공학과 유무에 따른 교양과목의 운영주관과 과목 수

과목유형: 교양필수, 영역배분, 자유선택과목별 분류

과목영역: 음악 교양과목의 상위 영역 분류방식 및 영역명

과목성격: 음악 단독과목, 융합과목별 분류

강의방식: 이론강의, 실기강의별 분류

(※ 이론과 실기를 함께 다루는 교양과목일 경우에는 실기의 비중이 이론강의의 비중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실기 과목으로 분류함)

강의내용: 단독과목-이론, 단독과목-실기, 융합과목-이론, 융합과목-실기별 강의내용

III. 연구 결과

1. 음악 교양과목 운영주관

빈도분석 결과 전체 40개의 대학에서 개설된 모든 음악 교양과목의 수를 더하면 총 225과목이었다. 이는 예를 들어 같은 음악사 강의라도 ‘클래식 음악 여행’, ‘클래식 음악의 이해와 감상’, ‘쉽게 듣는 클래식 음악’ 등과 같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개설되기 때문에 각각을 별개의 과목으로 센 것이다.

분석 결과 40개 대학은 모두 교양대학(또는 교양교육원, 교양부서)을 갖추고 있었으나, 음악을 주제로 하는 교양과목을 분석한 결과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은 다소 부진했다. 대학 내 음악 관련 학과(서양음악과(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한국음악과(국악과), 실용음악과, 음악교육과, 공연예술학과 등)가 있는 31개 대학의 경우 음악 교양과목의 운영주관은 대부분 교양대학이 아닌 음악 전공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225과목 중 139과목,

61.78%). 한편, 대학 내 음악 전공학과가 없는 9개(22.5%) 대학에서는 54과목 중 52과목을 교양대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KONIGE)은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을 하는 법인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KCUE)의 부설기관이다. 2011년에 설립되었고, 한국교양교육학회 및 전국대학교 교양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교양교육에 대해 국내외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컨설팅을 통하여 대학 교양교육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학 기초 교양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목표로 한다(<https://www.konige.kr/>). 이 기관은 교양교육에 대한 정체성, 목표, 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목의 기본 요건, 교양교육 정상화에 요구되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 개별 대학의 검증 및 수정과정을 거쳐 2022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초교양과목의 운영은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주관할 것을 권장한다. 즉,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체계 구축과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는 전공/학과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p.10). 이를 교양 음악교육에 적용하면 음악 전공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음악 교양과목을 연구, 개발, 실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 음악 외의 타 학과에서 음악 교양과목을 운영한 경우는 모두 음악과 타 학문을 융합한 융합과목에 해당했다.

<Table 2> Management of music liberal arts courses

Department of music (total of 40 Universities)	Number of liberal arts subject (total of 225 subject)	Operating manager	Number of subjects by operation manager
Exist (31, 77.5%)	169 (75.78%)	Music department	139 (61.78%)
		Liberal arts college	22 (9.78%)
		Department of other than music	8 (3.56%)
		Etc.	2 (0.89%)
Not exist (9, 22.5%)	54 (24.22%)	Liberal arts college	52 (23.11%)
		Department	2 (0.90%)
		Total	225 (100%)

2. 음악 교양과목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양과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과목(core requirement)’이다. 대학에서는 핵심교양, 중핵교양, 중점교양과목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영역별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영

역배분과목(distribution requirement)’이다. 배분이수, 영역교양, 영역선택, 균형교양, 융합교양, 융합선택과목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조건 없이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과목(general or liberal education)’이다. 교양선택, 자유교양, 자유선택, 일반교양, 기초교양, 소양교양, 확대교양, 그리고 드물게 심화내용을 다루는 교양과목(advanced education)도 제시되었다.

40개 대학에서 개설된 음악 교양과목의 유형은 대부분 자유교양과목(107과목, 47.56%) 또는 영역배분과목(93과목, 41.33%)이었다.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된 경우는 21건(9.33%)에 불과했다. 즉, 음악을 공부하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자유교양과목 보다는 영역배분과목이나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영역배분과목인 경우 다 영역에 걸쳐 음악 교양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Table 3> Types of music liberal arts courses

Type of music-related liberal arts subject	Total
General or liberal education	107 (47.56%)
Distribution requirement	93 (41.33%)
Core requirement	21 (9.33%)
General or liberal education- Advanced education	4 (1.78%)
Totals	225 (100%)

3. 음악 교양과목 영역

음악 교양과목을 포함한 상위 영역의 명칭은 대학별 지향 목표, 교양과목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음악 교양과목의 영역 명을 예술 또는 인문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음악을 ‘예술’ 영역으로 보는 경우 미술과 음악 과목을 포괄하며 ‘예술과 표현’, ‘예술의 기초’, ‘예술실기’, ‘예술창작토대’, ‘예술’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영역명을 ‘예술과 OO’ 또는 ‘OO와 예술’의 형태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예술과 체육’, ‘예술과 건강’ 등 음, 미, 체의 개별 교과목을 하나로 묶은 영역 명이 많았다. 또 ‘문화와 예술’, ‘문학과 예술’ 등 인문학과 예술을 묶은 영역 명이 있다.

예술 영역의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는 경우 음악 교양과목은 ‘인문학’의 영역에서 개설되었다. 영역 명은 사상과 역사, 사회와 평화, 상징과 문화, 언어와 문화 등 다양했다. 이렇게 음악을 인문학의 하위 분야로 설정한 경우 음악의 예술적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둘째, 일부 역량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의 경우 역량을 영역 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개념화한 교양 기초교육의 구분에 따르면 예술 교과는 ‘심미적

공감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과이다(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p.5).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심미적 공감 역량과 관련된 영역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역량, 창의(창의·융합)적 역량이 가장 많았고, 자기주도적 역량, 사고제발능력, 자기계발능력 등으로도 제시되었다.

셋째, 예외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의 이해’라는 영역에서 음악 교양과목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음악 교양과목의 영역 명으로 예술의 속성이 반영된 ‘예술과 표현’, ‘예술창작토대’ 등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음악 교양과목을 너무 큰 범위의 인문학 영역으로 놓거나 음악의 본질적인 역량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음악교육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Table 4> Erea of music liberal arts courses

Classification criteria	Names of erea (Number of Universities using the name)
Academic name	Arts Arts and expression (2), Foundation of arts (1), Art practices (1), Arts creation foundation (1), Arts (1)
	Arts and othe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7), Arts and health (2), Arts and literature(1), Arts and culture (1), Arts and design (2)
	Culture and arts (8), Literature and arts (5), Culture/Arts/Physical education (2), Cultur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 Humanities and arts (2), Human and arts (1), Life and arts (1)
	Humanities Culture and communication (1), Thought and history (1), Symbol and Culture (1), Language and culture (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 Liberal arts and character development (1), Humanities (1), Reading classical literature (1), Human culture (1)
	Science and Humanities Digital innovation and human (1)
Name of competency	Community Global talent cultivation (1),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1), Communication competency (1), Collaborative communication competency (1)
	Creative convergence Global/Creative competency (1),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1), Creative competency (1), Convergence competency (1),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2), Comprehensive convergence competency (1), Creative comprehensive convergence competency (1)
	Self-directed self-directed growth (1)
	Cognitive development Enhancemen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1), Computing and mathematical thinking (1)
	Self-development Challenge and action (1), Career exploration and achievement (1), Self- development (1)
Lecture for Foreigner	Understanding of Korea (1)
No title	Elective course (1), Free elective course (2), General area (2)

4. 음악 교양과목 성격

음악 교양과목의 성격은 음악 단독과목으로 개설된 경우가 전체 225과목 중 173과목 (76.68%)을 차지하였다. 인문, 심리학, 과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한 융합과목은 52과목 (23.11%)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music liberal arts courses

Characteristics of music-related liberal arts subject	Total
Music course	173 (76.89%)
Convergence course	52 (23.11%)
Totals	225 (100%)

5. 음악 교양과목 강의방식

음악 교양과목의 강의방식은 이론강의와 음악실기로 구분된다. 이론강의는 교수자가 음악사, 음악장르, 음악기초이론 등 음악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하는 수업이다. 이론 강의에서는 이론과 함께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음악실기는 가창, 기악, 창작 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음악 실기 경험이 수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수업이다.

분석 결과, 음악 단독과목 173개 중 118과목(68.21%)이 이론강의, 55과목(31.79%)이 실기 과목에 해당했다. 음악과 타 학문을 연계한 융합과목 52개 중 47과목(90.39%)이 이론강의, 5과목이 실기 과목(9.62%)으로 개설되었다. 즉, 교양과목은 대형강의로 다양한 전공자가 수강하므로 음악에 대한 이론, 원리, 특징을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Teaching style of music liberal arts courses

	Theoretical lecture	Music applied lessons
Music course (173 subjects)	118 (68.21%)	55 (31.79%)
Convergence course (52 subjects)	47 (90.39%)	5 (9.62%)

6. 음악 교양과목 강의내용

1) 음악 단독 교양과목

(1) 이론강의의 주제와 내용

다른 학문과 융합되지 않은 음악 단독 교양과목에 대하여 교수요목에서의 과목 소개

와 수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강의자의 설명이 중심이 되는 이론강의는 총 118과목이었다. 모든 수업 주제를 추출한 결과 음악사, 음악장르, 음악의 이해, 다문화 음악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었다.

음악 단독 교양과목의 수업 주제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음악사’로 118과목 중 77과목(65.25%)으로 나타나 음악 교양과목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클래식 음악사는 49과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한국음악사 20과목, 대중음악사 7과목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특정 음악 장르’를 다루는 과목이 31과목(26.27%) 검색되었다. 특히 극음악인 오페라, 뮤지컬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목이 21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그 외에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을 다루는 과목이 5과목 검색되었다.

소수이지만 음악의 기초이론 및 감상법을 다루는 개론 강의가 8과목(6.78%), 다문화 음악을 다루는 강의가 2과목(1.67%) 개설되었다.

<Table 7> Topics and contents of music theory lectures

Topics	Contents	Total
History of music (77 subjects, 65.25%)	Classical music	49
	Korean traditional music	20
	Popular music	7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to K-POP	1
Musical genres (31 subjects, 26.27%)	Opera	9
	Musical	9
	Two or more genres of theatre music	3
	Ensemble music (chamber music, symphony, concerto)	5
	Pansori	2
	Various musical genres	2
	Jazz	1
Introduction of music (8 subjects, 6.78%)	Musical theory and appreciation	8
Multi-cultural music (2 subjects, 1.67%)	World music	2
Totals		118 (100%)

(2) 실기 강의의 주제와 내용

체험소양교육은 교양기초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교양교육의 일반 원리를 탐색함에서 나아가 지정의(知情意)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전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p.7). 따라서

연주, 창작과 같은 실기 교양과목을 통해 음악을 심미적으로 체험함이 중요하다.

음악 단독과목 중 실기과목은 55과목(31.79%)이었다. 40개의 대학을 통틀어 가창과 기악 실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중 가창 영역은 25과목(45.46%)이 있었고, ‘합창’이 17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대학에서의 합창의 경험은 음정, 리듬, 화성 등 음악적 감각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화합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영적으로 고양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 및 호흡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Clift & Hancox, 2001).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수의 수강생을 포함하는 교양과목에서 합창은 여러 면으로 매우 효과적인 음악 과목이다.

기악 영역은 8개 대학에서 25과목(45.46%)이 검색되었다. 적은 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정 악기연주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광운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 다양한 클래식 악기(12과목)와 국악기(8과목) 강의를 있었다.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에 따르면 교양과목에서의 예술실기의 경우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것, 대학 외부의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내용은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p.10). 이에 음악실기 과목은 악기 숙달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악기론, 역사, 감상과 토론 등을 포함시켜 교양적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드물게 실내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팝밴드 음악도 있었는데, 이는 합창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악기를 서로 맞추면서 합주하고 여러 긍정적인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창작 실기과목은 4개, 지휘과목은 1개로 극소수 개설되었다. 향후 더 다양한 교양 음악실기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Table 8> Topics and contents of music applied lessons

Music performance area		Contents	Total
Singing		Choral singing	17
		Vocal training	3
		Opera or musical play	5
Playing an instrument		Instrument in classical music (saxophone, classic guitar, percussion, piano, violin, flute, clarinet, cello)	12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Nanta, Danso, Gayageum, Geomungo, Haeguem)	8
		Ensemble, orchestra, pop band	5
			25 (45.46%)
Composition		Composition	4
Music conducting		Choir conduct	1
Totals			55 (100%)

2) 음악 융합과목

(1) 이론강의의 주제와 내용

융합과목이면서 이론강의인 교양과목은 47과목(90.39%)이다. 융합한 분야는 인문학이 33과목으로 70.21%를 차지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으로 인간과 문화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 인간의 가치와 정신의 독특한 표현 능력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분야이다(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음악은 인문학의 한 영역이기에 인문학과의 융합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문화, 역사와의 융합이 33과목 중 15과목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사회(6과목), 철학(2과목), 문학(2과목), 언어(2과목), 종교(1과목), 인문학적 시각의 음악 이해(5과목)가 있었다. 이러한 과목들이 서양에서는 음악학(musicology)의 하위학문에 속하는 과목들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음악학 중에 음악사, 작곡이론과 같은 극히 일부 분야 외에는 음악대학의 학부 교육에 소개되지 않는 생소한 과목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음악 연구에 있어서 인문학 인접학문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하는 형태의 과목들을 통합하여 융합강좌로 분류하였다.

그 밖의 융합과목은 임상심리학을 융합한 음악치료학(4과목), 영화와 융합한 영화음악(4과목), 음악에 대한 과학적 이해(3과목), 비즈니스와 연계한 대중음악 제작과 엔터테인먼트(1과목)가 있었다.

<Table 9> Contents of music convergence theory lectures

Convergence Studies	Contents	Total
Humanities (33, 70.21%)	Music, culture and history	15
	Humanistic understanding of music	5
	Music and society	6
	Music and philosophy	2
	Music and literature	2
	Music and language	2
	Music and religion	1
Clinical psychology	Music therapy	4
Other arts	Film music	4
Scienc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music	3
Management	Popular music production and entertainment business	2
Engineering	Musical technology and programming	1
Totals		47

(2) 실기 강의의 주제와 내용

융합과목 중에서도 음악 실기의 비중이 높은 과목은 5과목(9.62%)이었다. 무용과 융합하는 경우 무용음악을 제작,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는 과목이 있었다. 과학과 융합하는 경우 소리 과학과 악기 동작 원리를 이해하여 악기를 제작하는 과목이 있었다. 수학과 융합하는 경우 화학학의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작곡을 실습하는 과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과 융합한 음악치료는 치료를 위한 연주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Table 10> Contents of music convergence applied lessons

Convergence Studies	Contents	Total
Dance	Dance music composition	1
	K-POP dance	1
Science	Making musical instrument	1
Mathematics	Harmony theory for composition	1
Clinical psychology	Music therapy practice	1
Totals		5

이같이 국내 대학의 음악과 타 학문을 융합한 교과목 수를 분석한 결과 이론 및 실기 면에서 강의 수가 매우 적었고 주제도 한정적이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전문적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창출 및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융합교육은 교육의 분절적 경향을 극복하고 통섭적 사유와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21세기 대학 교양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Hong, 2011). 201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24)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 기술, 예술을 결합하는 STARTS(Science, technology and art)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국과 유럽 대학에서는 예술을 포함한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합 관련 부서 조직, 교육과정 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업 모니터링, 평가 등으로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보고되고 있다(Carter et al., 2021). 이에 국내 대학에서도 음악을 타 학문과 연계하는 양질의 융합 교양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특별법 설치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4년제 종합 대학교 중 임의로 40개 교를 선정하여 교양 음악교육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소속 외부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23년에 공지된 교육과정, 교수요목, 1학기과 2학기의 수업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자료에서 총 225개의 음악 교양과목을 발견하였다. 운영주관, 과목유형, 과목영역, 과목성격, 강의방식, 강의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악 교양과목의 운영주관은 대학 내 음악 전공학과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음악 전공학과(61.78%)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양대학(23.11%)이 운영하였다. 각 대학은 모두 교양대학, 교양교육원, 교양부서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음악 교양과목은 음악 전공학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교양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주체인 교양대학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공학과에의 의존도가 높으면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비해 부수적인 교육으로 하향될 수 있고 교양과목을 담당할 교수의 수급도 불안정해 지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Seo, 2010). 배상훈, 박정하, 한송이, 황수정, 이규린(Bae, Park, Han, Hwang, & Lee, 2017)는 양질의 교양교육 지원을 위하여 조직, 인사, 교육과정, 질 관리의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따르면 교양대학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학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음악 교양과목을 전담할 수 있는 교강사를 확보하여 대학 교양교육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음악교육을 집중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양 교육과정 내 음악 관련 과목의 위치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 교양과목의 유형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강하는 자유교양과목(47.56%)이나 영역별로 수강 제한을 두는 영역배분과목(41.33%)이었다. 학생들이 음악 교양과목을 7자유학예에 해당하는 기초 학문으로 인지하고 적어도 졸업 전까지 1번은 수강할 수 있도록 자유교양과목 보다는 영역배분과목이나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영역배분과목의 경우 인문, 사회, 과학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음악 융합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교양과목의 영역 명으로 예술 또는 인문학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역량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에서는 공동체, 창의(창의·융합), 자기주도 역량 등에 음악 교양과목을 포함하였다. 음악을 포함하는 영역 명은 너무 광범위한 상위 개념인 인문학보다 ‘예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또 역량으로 영역 명을 표현하는 경우 ‘심미적 역량’, ‘심미적 공감 역량’ 등 예술의 본질적 성격을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음악 교양과목은 음악 단독과목(76.89%)이 음악과 타 과목을 융합한 과목(23.11%)보다 월등히 많았다. 음악 단독과목은 음악의 기초, 교양을 배우기 위해 중요하다. 더불어 융합과목의 비중도 높다면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음악 교양과목의 강의방식은 음악단독-이론 강의(68.21%)가 음악단독-실기(31.79%), 융합-이론(30.39%), 융합-실기 강의(9.62%)보다 월등히 많았다. 교양과목의 특성상 다 전공으로 구성된 많은 학생을 수용해야 하므로 강의식 강의가 효율적이다. 다만 이론강의라 하더라도 음악 활동을 적절히 포함한다면 더욱 역동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음악단독-이론 강의내용은 전체 118과목 중 음악사(62.25%)에 집중되어 있었다. 음악사, 음악장르, 음악개론, 다문화 음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악단독-실기 강의내용은 55과목 중 가창(45.46%), 기악연주(45.46%)가 대부분이었다. 교양과목인 만큼 개별 학습보다는 합창, 합주 등 공동체가 함께 음악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는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야 하겠다. 반면 융합-이론 강의내용으로는 47과목 중 인문학과와의 융합(70.21%)이 가장 많았고 융합-실기 강의내용으로는 무용, 과학 수학, 임상심리학과 융합된 5개 교과목이 발견되었다. 학생의 사고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연계,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 개발해야 하겠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미시간 대학(Michigan University)의 23년도 LSA(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코스에는 ‘창의적 표현(Creative Expression)’과 ‘인문(Humanities) 영역’에서 음악 교양과목이 개설되었다(<https://lsa.umich.edu/lsa/academics/courses.html>). 창의적 표현 코스는 작곡, 오케스트라, 밴드, 코랄합창, 글리클럽, 재즈앙상블, 실내악, 즉흥연주 등 다양한 합창, 합주 음악실기 강의를 포함되어 있다. 인문 코스에서는 서양음악, 다문화음악, 대중음악, 음악 개론 등의 이론강의가 포함되어 있다. 실기와 이론으로 나누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일대(Yale University)의 23년도 여름학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음악 융합 교양과목을 찾아볼 수 있다. ‘정량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인문예술(Humanities and Arts)’,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세 영역에서 문화, 인류, 젠더, 환경, 문학, 과학, 산업, 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https://summer.yale.edu/courses-distributional-requirement>).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대학 생활 중 학생들이 음악을 필수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 구조, 과목 수,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음악이론, 실기, 융합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비전공의 학생들이 음악을 삶의 다양한 부분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고, 또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술로써 향유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음악 교양과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국내의 교양 음악교육의 전체적인 운영현황과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Carter, C., Barnett, H., Burns, K., Cohen, N., Durall, E., Lordick, D., & Ussher, S. (2021). Defining STEAM approaches for higher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STEM Education*, 6(1), 1-16.
- Center fo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CSHE). (2007). A report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commission on gener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trieved April 2, 2024, from <https://cshe.berkeley.ed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gec-web.final.pdf>
- Choi, J. H. (2021). Influence of music education on music activities in lives and the attendance of music concert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6, 205-219.
- Choi, W. S. (2015). A study on the directionality of music courses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Music theory forum*, 22(2), 137-167.
- Clift, S. M., & Hancox, G. (2001). The perceived benefits of singing: Findings from preliminary surveys of a university college chor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1(4), 248-256.
- European Commission. (2024). STARTS(Science+Technology+Arts). Retrieved January 28, 2024, from <https://starts.eu>
- Han, G. Y., & Jo, S. C.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omponent of undergraduate liberal music education on continuous music learning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1), 155-170.
- Han, S. I. (2021). Incorporating college liberal arts music class with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6), 597-610.
- _____. (2022). ARCS learning motivation application in liberal arts Music cla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6), 653-668.
- _____. (2023). Applying mnemonics in liberal arts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6), 211-225.
- Han, S. J. (2022). A study on character liberal arts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music course. *Culture and Convergence*, 44(2), 603-634.
- _____. (2023). A case study of using problem-based learning in a university liberal arts classroom: focusing on a music appreciation-based clas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7(5), 259-280.
- Han, S. J., & Han, K.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subject as a liberal arts class and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of freshme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291-324.

- (202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life adaptation through music liberal arts education - Focused on music interest,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6), 261-275.
- Hargreaves, D. J., MacDonald R., & Miell, D. (2005). How do people communicate using music?. In Miell, D., MacDonald, R., & Hargreaves D. J. (Eds.), *Musical communication* (pp. 1-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B. S. (2011). A study of foundation liberal education activation plan for a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 140-161.
- Hyun, K. S. (2011). A Study on Teaching Music Appreciation Classes Using Film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2), 251-278.
- Jang, J. W. (2012). The search on music course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of the 21st century.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0(3), 183-197.
- Jung, J. O. (2007). Study on conditions of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of universities and student's preference.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 Jo, S. G. (2019). Contents and methods for the insight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 71-89.
- Jo, S. Y. (2018). A study on the convergence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46, 101-121.
- Kim, M. S. (2015). A music learning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lib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1), 333-359.
- Kim, S. J. (2022). Music general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Focusing on American music historiograph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6(1), 287-297.
-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Retrieved January 3, 2024, from <https://www.konige.kr>.
-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2). *The standard model of basic education in 2022 university liberal arts*. VA: Author.
- Langer, S. K. (1942). *Philosophy in a new key*. New York: A Mentor Book.
- Lee, E. Y. (2023). A case study of experience-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converging music listening and philosophic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7(6), 207-219.
- Lee, B. R. (2021). Development of a non-face-to-face music criticism education program for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language.

-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1), 149-161.
- Lee, G. W. (2015). The development of music appreciation course as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3(3), 39-55.
- Lee, J. H. (2021).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usic education for liberal arts at universities: Experience-oriented music education. *Knowledge & Liberal arts*, 8, 309-327.
- Lee, J. O. (2017). A study on the status operating system of general education and improvem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5), 481-517.
- Mishigan University. (2023). LSA(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curriculum.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lsa.umich.edu/lsa/academics/courses.html>
- Na, S. M. (2009).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ultural education of music in university: Around Seoul region. Master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Nam, J. Y. (2020). A case study based on experience: 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competencies in liberal ar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239-257.
- Oh, J. H., & Kim, S. M. (2009). The study of the undergraduate music appreciation course through the integrated approach.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6, 167-203.
- Oh, Y. J. (2013). Study on Liberal Arts in University through connection of Music and Fine Ar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4), 53-75.
- Oh, Y. J. (2015). Study of undergraduate liberal arts class integrating literature, music and art.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3, 197-217.
- Park, E. H. (2021). A study on effect of integrated liberal arts music education applying storytelling on the musical interest of college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43(10), 191-212.
- Park, J. Y., & Son, M. J. (2023). A study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of music in 2022: Focusing on 12 universities in Seoul. *Yonsei Institute of Music Research*, 30(1), 89-111.
- Park, M. S.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in university music education on learning flow,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3, 1-16.
- Paek, S. S. (2019). Reconceptualization of General Education through Reestablishing Appellation of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1), 141-161.
- Seo, N. S. (2010). Structural Difficulties and Tasks of General Education of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2), 1-18.
-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995). Humanities. Retrieved January,

12, 2024,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26&docId=511853&categoryId=42126>

- Shim, S. Y. (2017). A study on the actual state survey of the university liberal music education in Busan area.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 Shin, H. S. (2017). Post human discourse on music and its application to music in liberal arts education. *The Music research*, 25(1), 153-176.
- Son, M. J. (2019). Liberal music education as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5), 129-151.
- _____. (2020). A liberal arts program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tilizing soundscape. *Music and Culture*, 43, 5-32.
- Song, W. Y. (2021). Development of a model for 'understanding of popular music' curriculum using AHP technique.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16(1), 231-240.
- Yale University. (2023). Summer school curriculum. Retrieved January 2, 2424, from <https://summer.yale.edu/courses-distributional-requirement>